

책사랑·꿈키움 영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책사랑·꿈키움 영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

●● 본 그림책 놀이 교사지원자료의 집필방향

그림책은 영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다가가기 쉽고, 친숙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림책이 '읽어주는 활동'으로만 머무르거나, 놀이 주제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적 읽기'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책을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언어와 시각 예술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교사와 유아는 그림책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진정한 독자**가 됩니다.



지금은 도구적 읽기에서 벗어나, **독자로서의 유아를 존중하는 관점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유아가 그림책 속 세계를 마음껏 해석하고 확장하며 스스로 문학적 의미를 빚어낼 수 있도록, **교사는 그림책의 문학과 예술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책사랑·꿈키움 영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그림책 놀이 교사지원자료 3종을 마련했습니다.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는 능동적 독자로서 유아와 그림책을 바라보는 이론적·실천적 관점을 도울 수 있는 자료이며,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는 시각적 예술성이 뛰어난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소개하여 교사의 도서 선택 역량을 돕고,

3권 그림책 놀이 실행자료 『그림책과 대화하는 교실을 꿈꾸다』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철학을 기반으로 그림책과 대화하며 놀이하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영유아교사의 실천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세 권의 교사지원자료에는 교실 속에서 교사와 유아가 그림책을 매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놀이가 되고, 어떻게 의미가 피어나는지에 대한 **집필진의 깊은 성찰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교사학습공동체**가 함께 읽고 토론하며 자라나는 **‘배움의 여정’**을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본 그림책 놀이 교사지원자료 3종이 **영유아교사 여러분의 손**에 늘 가까이 머물며 **그림책과 함께 하는 새로운 배움과 실천의 여정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실 곳곳에서 그림책과 대화하고, 그림책으로 놀이하며, 그림책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

들어가며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에서는 그림책의 문학과 예술성,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좋은 그림책을 선별하고,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은 영유아교사가 그림책을 보다 전문적 시각에서 선택하고, 놀이와 교육과정 속에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는 영유아교사가

- 문학과 예술성을 지닌 좋은 그림책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 대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그림책을 살펴보고,
-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를 위한 좋은 그림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는 추천도서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유아교사들이 함께 그림책을 탐구할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과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놀이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상황에 따라 그림책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그림책이 열어 주는 다양한 배움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좋은 그림책을 보는 눈 008

제2장 대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그림책 016

제3장 장르별로 만나는 그림책의 세계 028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

01 • 글 없는 그림책 030

02 • 말놀이 그림책 042

03 • 시 그림책 054

그림책의 경계를 허무는 또 다른 즐거움

04 • 포스트모던 그림책 066

05 • 놀이참여 그림책 078

06 • 패러디 그림책 090

제1장

좋은 그림책을 보는 눈



제1장에서는

그림책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좋은 그림책이 지닌 가치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을 통해 교사들이 좋은 그림책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유아들과 함께 좋은 그림책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

좋은 그림책은 어린이의 진짜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어른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유아가 매일 느끼는 기쁨과 슬픔, 실수와 고민, 호기심과 상상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유아에게 더 깊이 다가갑니다. 유아의 현실과 마음을 솔직하게 비춰 주는 그림책, 그것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독자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그림책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정수**가 그림책에 담겨 있죠.”

이수지

- “그림책은 잊고 있던 동심을 되찾아 주기도 하고, 예술 그 자체로 감상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유아와의 교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주기도 해요. 그림책, 더 나아가서 책 자체를 많이 읽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희나

- “어린이의 갈등이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 내는 것이다. 그렇게 꾸민 이야기는 **어린이의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리스 샌닥



『파랑새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글 · 그림,
강무홍 역 | 시공주니어



『피터의 의자』
에즈라 잭 키츠 글 · 그림,
이진영 역 | 시공주니어



『넉 점 반』
윤석중 시, 이영경 그림
| 창비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그림책

좋은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건네며 한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는 책입니다. 글과 그림 사이에 감질나는 여백을 남겨 독자를 초대하여 그 간격을 메우고, 그 과정에서 깊은 정서를 선물하는 그림책, 그것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다.”

러셀

“그림책에서 글은 그림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림도 글을 반복하지 않는다. **글과 그림은 대위적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한다.”

유리 슬레비츠

“최고의 그림책은 **그림과 글 사이에 감질나는 간격**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으로 그 간격을 채워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앤서니 브라운

“칼데콧의 작품은 현대 그림책의 시작을 알린다. 그는 그림과 글의 독창적인 병치를 고안해 냈는데, 이는 전례 없는 대위법이었다. **글은 생략되지만 그림이 말해준다. 그림은 생략되었지만 글이 그 의미를 전달한다.**”

모리스 샌닥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글 · 그림,
최순희 역 | 시공주니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 · 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곰 사냥을 떠나자』

마이클 로젠 글, 헬렌 옥스버리 그림,
공경희 역 | 시공주니어

●●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비추는 그림책

좋은 그림책은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비추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은 삶의 따뜻함과 위로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비추는 거울입니다. 유아와 어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한 감정, 불편함을 직면할 용기,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걸어갈 힘을 건네는 그림책, 그것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좋은 그림책이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결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 휴식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천미진

- “인생은 비극이지요.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사람들은, 심지어 유아들도 놀라울 만큼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끝이 좋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볼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낯선 마음을 어루만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바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백희나

- “좋은 그림책을 정의해보는다면 때로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이 세계에 분명히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 역시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 클라센



『알사탕』
백희나 글·그림
| 스토리보울



『눈 오는 날』
에즈라 잭 키츠 글·그림
김소희 역 | 비룡소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림 글, 안녕달 그림
| 위즈덤하우스

● 상상 속 틈을 열어주는 그림책

좋은 그림책은 누구든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마음 속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보고, 이야기 너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림책, 그것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만든 글을 편지로 받곤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 다르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협업**과 같아요. 누구든지 이 그림책을 읽고 있다면 저와 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바바라 리만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그림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예요. 그림책을 통해 메세지나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라 확실히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예요.”

데이비드 위즈너

“모든 이야기에는 결말이 없다. 대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어린이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답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앤서니 브라운



『시간 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그림자놀이』
이수지 글 · 그림
| 비룡소



『늑대들』
에밀리 그래빗 글 · 그림
이상희 역 | 비룡소

●●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비추는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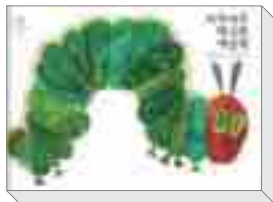
좋은 그림책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한 권의 예술 작품으로서 독자와 만나는 책입니다. 시각적·서사적 완성도를 통해 유아로 하여금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책, 그것이 좋은 그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좋은 예술을 볼 자격이 있다. **그림책의 그림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모리스 샌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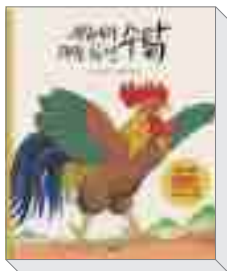
“나는 그림책을 **예술과 문학이 만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손 탠

“그림책은 **유아를 위한 예술**이자, **어른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예술**이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나

“그림책은 **유아가 만나는 첫번째 예술**이다.”
레오 리오니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
에릭 칼 글·그림,
김세실 역 | 시공주니어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이호백 글, 이억배 그림
| 재미마주



『아호 비 온다』
피터 스피어 글·그림,
비룡소 편집부 역 | 비룡소

“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책은
무엇인가요?

”

제2장

대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그림책



제2장에서는

대전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아들이 실제로 즐겨 읽고 사랑한
그림책 20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장을 통해 유아들의 흥미에 맞는 도서 선택에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그림책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 무엇이니?”

●● 백희나 작가 그림책 시리즈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이상한 손님』

백희나 글 · 그림 | 스토리보울

“나랑 같이 놀래?”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시리즈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마법 같은 따뜻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현실과 상상이 자연스럽게 맞닿은 이야기들은 유아들에게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을 길러주고, 교사에게는 유아의 눈으로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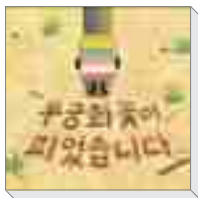


“알사탕이 반짝반짝해서 예뻐서 좋아요. 나도 그런 사탕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알사탕을 선물하고 싶어요!”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천미진 글, 장은옥 그림 | 키즈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양한 떡들이 전통놀이를 하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각 떡들의 특징이 드러나서 책 읽는 내내 유아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유아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간식과 놀이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가래떡의 몸이 흔들거리는 게 너무 웃겨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같이 해보고 싶어요.”



●● 슈퍼 토끼, 슈퍼 거북



『슈퍼 토끼』, 『슈퍼 거북』 유설화 글 · 그림 | 책읽는곰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나는 나답게!”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절대 뒤지 않는 슈퍼토끼, 토끼보다 빠른 슈퍼거북이로 변신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토끼랑 거북이가 슈퍼맨처럼 되는 게 재밌어요.”



●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별다름 · 달다름 글, 서영 그림 | 키다리

“유아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에 내가 뽑혔다고?”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로 뽑힌 브로콜리가 ‘사랑받는 채소’가 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스스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에게 자기다움과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브로콜리가 오이처럼 방송하는 장면이 재밌어요.”

“이제 브로콜리도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요.”



● 퐁퐁퐁 시리즈



『퐁퐁퐁 퐁』



『퐁퐁퐁 피자』



『퐁퐁퐁 좀비』

윤정주 글 · 그림
| 책읽는곰

“냉장고 속으로 카레 좀비 가족이 튀어나왔다!”

냉장고 속 음식들이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며 말하는 기발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시리즈입니다. 그들만의 재미있는 대화와 살아있는 표정 등으로 유아들부터 초등 저학년 유아들에게까지 사랑받는 그림책 시리즈입니다.



“음식들이 좀비로 바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음식들이 말을 하는 게 재밌어요.”



진짜진짜 재밌는 시리즈



『진짜진짜 재밌는 공룡 그림책』
베로니카 로스 글,
브라이트 스타 그림, 임종덕 역
| 라이카미



『진짜진짜 재밌는 거미 그림책』
클라디아 마틴 글,
앤드류 이스턴 그림, 김맑아,
김경덕 역 | 라이카미



『진짜진짜 재밌는 바다 그림책』
수잔 바라클로우 글,
브라이언 러스트 그림,
김맑아 역 | 라이카미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진짜 재밌는 이야기!”

진짜진짜 재밌는 시리즈는 도감보다 훨씬 흥미롭고, 백과사전보다 더욱 재미있고, 유아들의 호기심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그림책입니다. 신기한 이야기를 생생한 그림과 함께 소개하여 유아들부터 초등 저학년 유아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지식 그림책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공룡 같아요!”



“신기한 거미들이 많이 나와요!”

곰돌이 팬티



『곰돌이 팬티』
투페라 투페라 글 · 그림,
김미대 역 | 북극곰

“있잖아, 내 팬티가 없어졌어”

『곰돌이 팬티』는 국내 최초로 팬티를 입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에는 곰돌이와 친구 생쥐가 등장하여 곰돌이가 잃어버린 팬티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모습의 팬티를 입은 동물을 보면서 누구의 팬티일까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앞 장에서 본 팬티가 어떤 동물의 팬티일지 상상하는 유아들은 그림책의 다음 장을 계속 넘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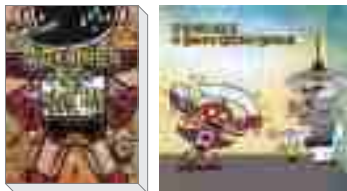


“이것 봐! 곰돌이가 팬티를 입고 있어!”



“다음 장에는 어떤 동물의 팬티가 나올까?”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안영은 글, 최미란 그림 | 책읽는곰

“똥도사님, 제발 똥 닦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물어 보기는 부끄럽지만 살아가며 꼭 필요한 똥 닦는 방법을 명쾌하고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똥 도사가 백 년 동안 연구한 ‘똥 잘 닦는 권법’을 통해 똥 닦는 법을 상세하게 전수해주어 독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재치 넘치는 그림책입니다.



“똥 잘 닦는 권법이 있다는 게 너무 웃겨요”

“똥 잘 닦는 권법을 100년 동안 연마했대!”



앤서니 브라운 작가 그림책 시리즈



『우리는 친구』

『우리 아빠』

『미술관에 간 윌리』

『기분을 말해봐』

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나는...필요해...친구가.”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그림책 시리즈는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고릴라와 침팬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웃음을 줍니다. 또한, 그의 책 속에는 늘 숨은 그림과 상징들이 숨어있어 그림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찾으며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고릴라와 침팬지 윌리를 찾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빠에서 나오는 아빠 표정이 웃겨요.”



●● 건전지 가족 시리즈



『건전지 엄마』



『건전지 아빠』



『건전지 할머니』

강인숙, 전승배 글 · 그림 | 창비

“사랑으로 충전되는 건전지 가족의 이야기”

양모 펠트 인형으로 만든 건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책입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건네는 에너지를 기발한 상상으로 풀어낸 애니메이션이 따뜻한 그림책 시리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유아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건전지 가족의 활약을 보면 웃음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따스함이 깊게 전해지는 그림책입니다.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가 힘이 세서 좋아요!”



●● 고구마구마



『고구마구마』
사이다 글 · 그림 | 반달

“세상에서 가장 웃긴 고구마 이야기가 나왔구매!”

고구마의 생김새와 맛에 재미와 개성을 더해 태어난 참신한 그림책입니다. 재미난 말놀이를 책을 읽고 난 후 유아들을 언어의 마술사가 되도록 만드는 그림책입니다.



“자꾸자꾸 달라지는 고구마의 모습이 웃겨요!”

“아기 고구마가 너무 귀여워요!”



수박 수영장



『수박 수영장』 안녕달 글 · 그림 | 창비

“청량하고 기발한 수영장으로 초대합니다.”

한여름 거대한 수박이 반으로 갈라지며 마을 사람 모두에게 열리는 수박 수영장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과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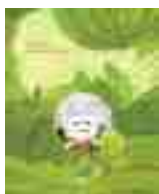


“저도 수박 수영장에서 수영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수박에 빠지는 게 웃겨요”



진정한 일곱 살



『진정한 일곱 살』
허은미 글, 오정택 그림
| 만만한책방

“진짜 진정한 일곱 살은 앞니가 하나쯤 빠져야 해요”

진정한 일곱 살은 과연 어떤 나이일까? 이 그림책은 ‘일곱 살’ 유아의 눈높이에서 일곱 살 유아들이 겪는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재미있는 그림과 문장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정한 일곱 살은 엉뚱한 상상력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뭉쳐져 있는 나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일곱 살은 채소도 다 잘 먹어야 돼!”

“일곱 살에게 용기를 주는 책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
최숙희 글 · 그림 | 책읽는곰

“내 기분은 무지개색. 자꾸자꾸 달라져.”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어려워 하는 유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림책입니다. 좀처럼 말하기 힘든 내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보면서 단단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의 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무지개 색깔이 예뻐서 좋아요”

“내 기분도 빨주노초파남보 엄청 다양하거든요”



100층짜리 집 시리즈



『바다 100층짜리 집』



『지하 100층짜리 집』



『하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글 · 그림, 김숙 역 | 북뱅크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까?”

이와이 도시오의 100층짜리 집 시리즈는 새로운 감각의 숫자 그림책입니다.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거나, 하늘 100층까지 올라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판형을 구성했습니다. 100층에 도달하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층마다 만나는 인물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다음 층에는 누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책이 엄청 길게 펼쳐서 신기해요”



●● 임금님이 돌아오기 100초 전



“100초 안에 정리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임금님이 외출한 틈을 타 신나게 놀던 경비병들이 임금님이 돌아오기 100초 전 혈레벌떡 정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책을 읽는 내내 유아들과 숫자를 함께 세며 긴박한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돌아오기 100초 전』
가시와바라 가요코 글 · 그림 | 길벗스쿨



“정리시간에 우리 같아요!”



“저 숫자 100까지 셀 수 있어요!”

●● 모모모모모



“그림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 언어유희”

벼의 한살이를 낱말을 말놀이하듯 표현하여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짧은 구호만으로 모내기부터 벼가 자라 쏠이 되어 밭상에 오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모모모모모』 밤코 글 · 그림 | 향출판사



“글자 방향이 바뀌는 게 재밌어요!”



“글자가 넘어지는 게 웃겨요”

●● 당근 유치원



“나는 우리 선생님이랑 결혼해야겠다.”

새 유치원에 온 아기 토끼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곰 선생님과 점차 마음을 나누며 적응해 가는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위로해 주는 작품입니다.

『당근 유치원』 안녕달 글 · 그림 | 창비



“곰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요”



“나도 당근 유치원에 가보고 싶어요!”

전설 그림책 시리즈



『팔빙수의 전설』



『친구의 전설』



『태양 왕 수바: 수박의 전설』

이지은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시리즈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엄포를 놓는 호랑이지만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익살스러운 그림 체로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는 교사와 유아들 모두에게 따뜻한 연민을 건넵니다.



“안무섭고 귀여운 호랑이가 나와서 좋아요!”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오싹오싹 그림책 시리즈



『오싹오싹 팬티』



『오싹오싹 당근』



『오싹오싹 크레용』

애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 홍연미 역 | 토토북

“공포와 코믹을 넘나드는 그림책”

일상적인 물건에 오싹한 상상을 더해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책 시리즈입니다. 검은 배경과 형광빛 색채, 재스퍼의 생생한 표정과 으스스한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반전 덕분에, 고전 스릴러 영화를 보듯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림책입니다.



“팬티가 자꾸자꾸 왜 돌아오는지 궁금해요!”

“무서운 이야기라서 재미있어요!”



제3장

장르별로 만나는 그림책의 세계



제3장에서는



그림책의 여섯 가지 장르를 중심으로, 각 장르별 그림책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을 통해 교사들은 다양한 그림책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들에게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

01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다’
글 없는 그림책

02

‘말의 재미를 느끼다’
말놀이 그림책

03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시 그림책

그림책의 경계를 허무는 또다른 즐거움

04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다’
포스트모던 그림책

05

‘책과 함께 놀이하다’
놀이참여 그림책

06

‘해학의 즐거움을 느끼다’
패러디 그림책

‘장르별로 만나는 그림책의 세계’ 길라잡이

제 3 장

장르별로 만나는 그림책의 세계

그림책 깊이보기

‘그림책 깊이보기’에서는 장르별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장르가 지닌 표현 방식과 서사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교수·학습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에서는 교사들이 서로의 관점과 해석을 공유 하며, 전문적 대화를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교수·학습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와 함께 그림책 펼쳐보기

‘유아와 함께 그림책 펼쳐보기’에서는 유아들과 그림책을 함께 활용해 볼 수 있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책을 놀이와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교실 문해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장 넓히기

‘책장 넓히기’에는 장르별 그림책 추천도서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장르나 다양한 표현 방식의 그림책을 의도적으로 구성하며 문해 환경을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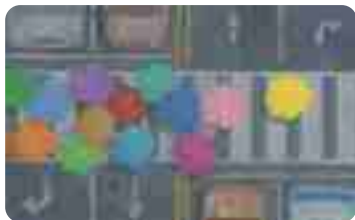
글 없는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이란 글 없이 그림만으로, 혹은 글이 있더라도 몇 개의 단어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글 없는 그림책 깊이보기

글 없는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미를 알아보까요?

하나, 그림 중심의 서사



『노란 우산』 류재수 글 · 그림, 신동일 작곡 | 보림

정교하고 명확한 그림 구성

비 오는 날, 회색 도시 속 노란 우산의 대비와 유아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그림만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의 방향과 유아들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적 연결성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단서로 하여 유아들과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시간적 연결성

주인공이 들고 있는 사진 속에는 어떤 여자 아이가 또 다른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수중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 속 장면을 보며 유아들과 그림의 연속성에 따라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 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 시공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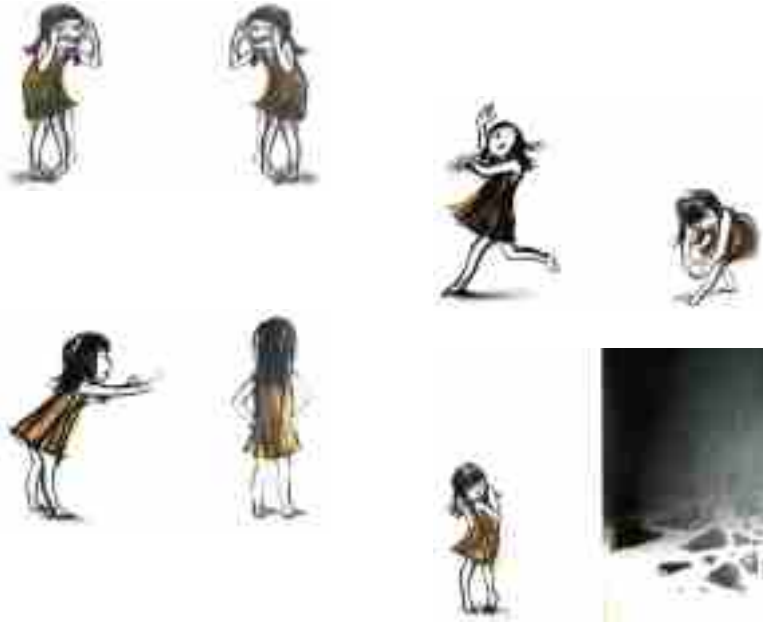


그림 속 작은 단서까지 주의 깊게 보며 이야기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분석력과 시각적 정보 해석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 독자의 능동적 참여

독자의 다양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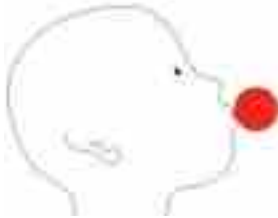
소녀와 거울 속 소녀가 서로를 보며 장난도 치고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결눈질로 살펴보니 거울 속 소녀가 다른 춤을 추고 있었고, 이를 본 소녀는 화가 나서 거울 속 소녀를 힘껏 밀어내며 거울이 깨집니다. 과연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처럼 글이 없는 그림책에서는 각 장면이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울속으로』 이수지 글 · 그림 | 비룡소



독자의 능동적 참여는 스스로 이야기의 의미를 구성하게 하여 창의성, 언어 능력, 정서적 공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 창작

그림 속 유아가 빨간 풍선을 불고 그 풍선은 점점 부풀어 순식간에 유아를 떠나 혼자 여행길에 오르니다. 풍선은 사과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어 스스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유아들과 다양한 장면을 보며 풍선이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변신하게 될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모자』 로트라우트 수잔네 베르너 글 · 그림 | 보림

이야기의 공동 창작자

소년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오리 · 아줌마 · 원숭이 · 사육사에게 차례로 넘어가는데, 각 장면에는 다음 모자를 가져갈 인물이 미리 등장합니다. 유아들은 앞뒤 장면을 오가며 다음에는 누가 모자를 가져가게 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셋, 친숙한 소재

『사자와 생쥐』

제리 핑크니 글 · 그림, 윤한구 역 | 열린책들



친숙한 주인공의 등장

글 없는 그림책에서는 사자와 생쥐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동물을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시켜 유아들의 즉각적인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며 그림책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야호 비 온다』 피터 스피어 글 · 그림, 비룡소 편집부 역 | 비룡소



일상적 사건 중심

비 오는 날, 놀이와 같이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경험을 등장시켜 유아의 경험과 기억, 감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친숙한 장면들은 유아가 실제로 경험한 상황을 떠올리며 글이 없어도 그림만으로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작하도록 돕습니다.



친숙한 소재는 그림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의미를 구성하며 정서적 안정감, 공감능력, 창의적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이 수 지

“글 없는 그림책,
정답도 없지요”

이수지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영국 캠버웰 칼리지 오브 아트(Camberwell College of Arts)에서 북아트를 공부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림책들을 펴냈으며, 2022년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대표작 살펴보기

『파도야 놀자』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거울속으로』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그림자놀이』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여름이 온다』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이수지 더 알아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림책에 글이 없어서 당황하신 적 있나요?
글 없는 그림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스 글 · 그림 | 마루벌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떠올려 보고, 실제 수업에서 해 보았던 방법이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Q.1

실제 현장에서 글 없는 그림책을 자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Q.2

글 없는 그림책을 읽는 동안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사가 먼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

유아와 함께 글 없는 그림책 펼쳐보기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들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글 없는 그림책 속 숨겨진 그림이나 **단서** 를 찾아보세요!

글 없는 그림책은 숨겨진 그림이나 자세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며 그림책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상한 화요일』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 비룡소

글 없는 그림책에도 제목이나 아주 짧은 **글자**가 적혀 있어요!

유아들과 제목이나 짧은 단어를 이용하여 그림책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뒤쪽엔 작은 글자도



짧은 글을 단서로 삼아 이야기를 **확장** 해보세요!

그림책 속 짧은 글을 살펴보고 유아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없는 그림책 추천작 한눈에 보기



겨울속으로
이수지 글 · 그림 | 비룡소

한 소녀와 소녀의 겨울상이
함께 신나게 놀다가 서로 토라
져 분리되는 과정을 글자 없이
간결한 이미지만으로 담아내어
깊은 울림을 주는 그림책이다.



이상한 화요일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화요일 저녁 8시 즈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공상의
대가, 꿈과 상상력의 작가가 보여주는 화요일 밤의
기막힌 풍경이 그려져 있다. 글이 거의 없기에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며,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시간 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시간 상자』는 바닷가와 바닷속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가족과 바닷가에 놀러 온 소년, 우연히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으로 올라온 수중 카메라, 그
수중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특징이 있다.



파도야 놀자
이수지 글 · 그림
| 비룡소

어느 화창한 여름 날, 엄마와 함께 한적한 바닷가에
놀러 오게 된 소녀의 특별한 하루를 담아내었다.
자유로운 먹선 위에다가 하얀색과 파란색만 사용한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글자 없이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끌어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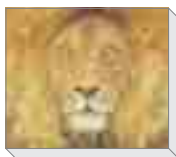
바람 부는 밤에
김병남 글 · 그림
| 어린이작가정신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이
어우러진 글 없는 그림책이다.
본문에는 글이 한 줄도 없지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면 글 없는 그림책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노란 우산
류재수 글 · 그림, 신동일 작곡
| 보림

『노란 우산』은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노란 우산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우산을 보여준다.
그림책의 노란 우산을 따라,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상상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노란 우산의
사랑스러운 선율을 떠올리게
되는 그림책이다.



사자와 생쥐
제리 핑크니 글 · 그림,
윤한구 역 | 열린책들

이솝우화로 잘 알려진 그림책『사자와 생쥐』는 그림만으로도 위풍당당한 정글의 왕 사자와 작은 생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그림책이다.



야호 비 온다
피터 스피어 글 · 그림,
비룡소 편집부 역 | 비룡소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간 두 남매의 하루를 그림만으로 표현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떠나지 않는 웃음이 비 오는 날 온통 들뜬 아이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빨간 풍선의 모험
엘라 마리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풍선처럼 동그란 머리통을 가진 까까머리 아이는 빨간 풍선을 분다. 풍선은 점점 부풀어 순간에 아이를 떠나 혼자 여행길에 오른다. 글은 없지만 풍선을 따라 가다보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늘을 나는 모자
로트라우트 수잔네 베르너 글 · 그림 | 보림

소년의 모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오리와 원숭이에게 가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저씨와 동물 사육사 언니에게 갔다가 눈사람에게 가는 내용이다. 소년이 모자를 되찾기까지 한 바퀴 여행을 창의적으로 그린 그림책이다.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스 글 · 그림
| 마루벌

눈이 평평 오는 날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면 얼마나 신날까? 그 눈사람이 사람처럼 움직인다? 글자 없이 그림만으로 되어 있어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파스텔을 이용한 그림이 표정을 훨씬 살아있게 해주는 그림책이다.



아트와 맥스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화가 아서와 화가가 되고 싶은 맥스를 통한 새로운 그림 기법과 흥미로운 예술 세계로 초대하는 그림책이다. 아서와 맥스가 주고 받는 짧은 대화를 통해 두 캐릭터의 상황에 몰입하게 해준다.

말놀이 그림책이란 자음과 모음, 혹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운율이 느껴지거나 의성어, 의태어, 흥내 내는 말, 재미있게 표현된 말 등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 우리말의 다양한 언어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그림책입니다.

말놀이 그림책 깊이보기

말놀이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알아볼까요?

하나, 언어적 재미



『훌쩍훌쩍 호로록』 손소영 글 · 그림 | 창비

의성어·의태어를 통한 언어의 즐거움

유아가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 모양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의태어와 같은 새로운 어휘를 접한 후 놀이 및 전이 시간, 일상생활 등에서 직접 표현해보거나 덧붙여서 새로운 말을 창조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모모모모』
밤코 글 · 그림 | 향출판사



『옥두두두두』 한연진 글 · 그림 | 향출판사



『영당이 학교』 김태호 글 · 그림 | 계수나무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언어의 즐거움

글을 이미지화한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을 탐색하며,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주는 이미지를 다양한 소리나 신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적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아는 의성어, 의태어, 운율 등 언어적 요소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유아가 스스로 책을 읽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 리듬감 형성



『고구마구마』, 『고구마유』 사이다 글 · 그림 | 반달

반복적인 음운과 단어의 사용

‘구마’, ‘~유’와 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음운과 단어, 그리고 단순한 문장 구조는 의미 전달을 넘어 소리와 리듬을 형성하여 유아들이 말의 재미를 느끼며 내적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호호호호박』 한연진 글 · 그림 | 사계절



유아는 반복적인 소리 표현을 경험하면서
음운 인식을 높이고, 관례적 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
읽기 능력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셋, 언어의 확장성



『이파라파 나무나무』 이지은 글 · 그림 | 사계절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단어

‘이파라파 나무나무’, ‘아나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자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를 추론하고 해석하여 말과 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의적 표현

그림책 속 ‘죽이유’라는 중의적 단어의 의미를 유아들이 친구들과 서로 다른 해석을 나누며 의미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교실 해석공동체로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유』 사이다 글 · 그림 | 반달

기존의 언어 틀에서 벗어나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단어와 중의적 표현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다양하게 추론하며 공동의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남겨 둔 빈자리를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밤코

제 3 장

정리월로 만나는 그림책의 세계

“가까운 일상을 낯설게 보기를 좋아하며
그 속에서 찾은 반짝임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밤코(김은선)는 2021 볼로냐 라가치상 논픽션 부문에서 『모모모모모』 작품으로
스페셜 멘션상을 수상하였다. 역시 한글에서 찾은 반짝임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한글을 낯설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반짝임을 찾은 그녀의 재치가 듬뿍 담겨있다.

대표작 살펴보기

『모모모모모』 밤코 글·그림 | 향출판사

『걱정머리』 밤코 글·그림 | 향출판사

『사랑은 123』 밤코 글·그림 | 바독이하우스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밤코 글·그림 | 바독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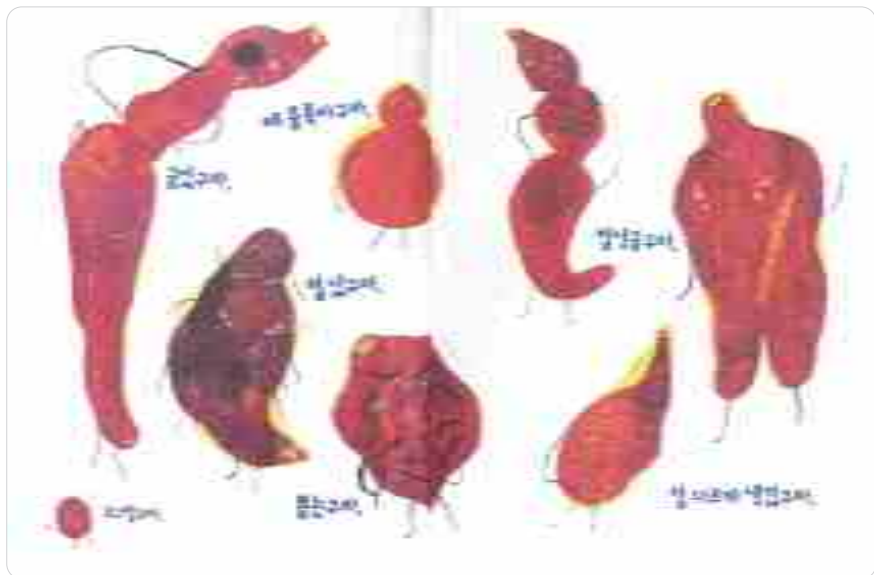
『이건 운명이야!』 밤코 글·그림 | 위즈덤하우스



밤코(김은선) 더 알아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말놀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고구마구마』 사이다 글 · 그림 | 반달

『고구마구마』 책을 읽고, 나만의 별명을 지어서 공유해 보세요.
나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었나요?



『고구마구마』를 읽고 직접 말놀이를 해보면서 어떤 언어적 즐거움을 느꼈나요?
우리 교실에서는 말놀이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Q.1

말놀이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은 어떤 언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

Q.2

말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아와 함께 말놀이 그림책 펼쳐보기

말놀이 그림책은 유아들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말놀이 그림책에서 타이포그래피로 표현된 부분들을 유아들과 다양하게 표현해 보면서 글자와 소리를 연결시키는 경험을 제공해주세요. (예: 벼 베는 동작을 따라하며 “벼!” 소리를 내기, 물결 모양 글자는 떨리는 소리로 읽기 등)



『모모모모모』 밤코 글·그림 | 향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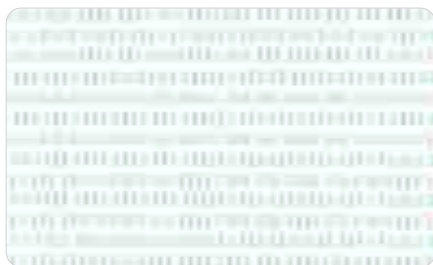
『모모모모모』 그림책을 함께 살펴본 뒤, 앞표지, 뒤표지, 앞면지, 뒷면지에 숨겨진 의미들도 함께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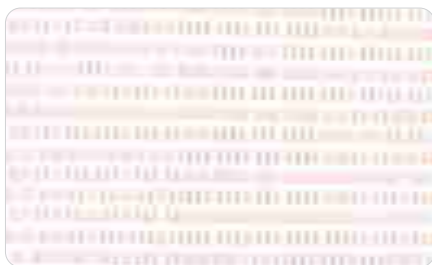
앞표지



뒤표지



앞면지



뒷면지

말놀이 그림책 추천작 한눈에 보기



고구마구마
사이다 글 · 그림 | 반달

단어의 끝에 ‘~구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언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말놀이 그림책이다. 다양한 고구마의 생김새를 ‘~구마’ 대화체로 표현하여 그림책의 반복되는 말소리의 특성을 즐길 수 있다.



고구마유
사이다 글 · 그림 | 반달

단어의 끝에 ‘~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언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말놀이 그림책이다. 충청도 사투리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유’ 대신 다른 글자를 넣어 말놀이를 변형,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홀짝홀짝 호로록
손소영 글 · 그림 | 창비

58가지 의성어, 의태어만으로 이루어진 말놀이 그림책이다. 다채로운 감정표현을 담아 독자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파라파 나무나무
이지은 글 · 그림 | 사계절

재미있는 말소리와 다양한 의성어를 접할 수 있는 말놀이 그림책이다. ‘이파라파 나무나무’라는 말소리의 의미를 다양하게 추론하고 해석하며 그림책 읽기를 즐길 수 있다.



옥두두두두
한연진 글 · 그림 | 향출판사

화려한 그림과 다양한 타이포그래피로 이루어진 말놀이 그림책이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점이 발견되는 책이다. 타이포그래피의 리듬에 따라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면 우리 말의 특성과 매력을 알게 된다.



호호호호박
한연진 글 · 그림 | 사계절

‘호박’ 글자 하나로 다양한 호박 이야기를 의성어, 언어유희, 타이포그래피 삼박자를 갖춘 말놀이 그림책이다. 타이포그래피가 주는 시각적 즐거움과 저마다 다른 운율을 통해 멋진 언어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모모모모모

밤고 글 · 그림 | 향출판사

문장이 거의 없으며, 단어의 반복, 결합, 변형을 통해 독자는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면 의미도 변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글자, 소리, 그림이 어우러져 언어의 즐거움과 표현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빵이 되고 싶은 토끼

마루야마 나오 글·그림,
고향옥 역 | 스펀북

‘삐보보름달빵’, ‘삐보말기빵’과 같은 합성어와 ‘폭신폭신티’, ‘주룩주룩’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 토끼가 빵을 만드는 과정이 잘 드러나며, 책의 바코드를 빵모양으로 디자인한 재미있는 파라텍스트적 요소가 돋보인다.



영당이 학교

김태호 글 · 그림 | 계수나무

영당이 학교의 반구 선생님이 방구 꿩이 수업을 진행하며, ‘뽕뽕’, ‘딩동’, ‘또로로롱’과 같은 다양한 의성어를 방귀 소리로 재미있게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제목의 글자 ‘ㅇ’을 영당이 모양으로 표현한 파라텍스트적 요소가 돋보인다.



새하얀 고양이

수아현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고양이의 표정과 행동에 따라 ‘퍽’, ‘함’, ‘철퍼덕’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면서 내용이 전개되는 그림책이다.



딩동거미

신성희 글 · 그림 | 한림

거미가 거미줄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개미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이어가는 형식의 말놀이 요소가 드러나는 그림책이다.



간장 공장 공장장

한세미 글, 대성 그림 | 콧터

‘~공장 공장장’이라는 이름 구조가 반복되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잔말놀이가 수록되어 있어 어려운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시 그림책이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지며 함께 의미를 구축해 가는 그림책입니다.

시 그림책 깊이보기

시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알아볼까요?

하나, 시 읽기의 즐거움

TIP

『넉 점 반』 읽기 tip!
아이의 시선을 쫓아가 보세요!



『넉 점 반』 윤석중 시, 이영경 그림 | 창비

시와 그림의 상호보완성

『넉 점 반』 속 유아가 닭·개미·잠자리·분꽃을 만나는 장면들은 유아의 시선과 색 그리고 구도 등으로 구현되어 시 낭송만으로는 달기 어려운 시각적 감각을 전달합니다. 원작 시의 언어적 묘미가 감각적인 그림과 어울려져 시어의 의미와 그림책 장면의 이미지가 함께 깊어집니다.

작게 씨알로 뽕이질 띄는 없다.
저 안에 배종 딸 게
저 안에 천둥 딸 게
저 안에 비파 딸 게

저게 파 혼과 돌글이 팔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뽕 딸
저 안에 뽕 딸 두어 알
저 안에 초승달 딸 딸



『대추 한 알』 장석주 글, 유리 그림 | 이야기꽃

『대추 한 알』은 짧은 시에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그림을 덧대어 그려진 시 그림책이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달조각』 박종진, 윤동주 글, 전지은 그림 | 키즈엠

『달조각』은 윤동주의 여러 시가 아빠와 아들의 저녁 산책 배경과 만나 그 속에 시가 한편한편 녹아들어 있는 시 그림책이다.

시적 요소의 시각화

시 그림책은 시에 그림을 덧대 독자의 시 읽기를 안내하고 보완해줄 수 있어 시의 추상적인 언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시 그림책은 그림과 시어의 결합을 통해 시 읽기의 즐거움을 높여,
유아들이 시를 낯선 글이 아닌 친숙한 글로 경험하며
능동적 시 읽기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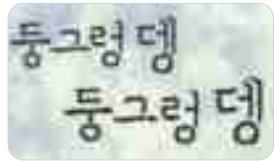
둘, 언어의 다채로움

TIP

『둥그렁 덩 둥그렁 덩』 읽기 tip!
커다란 보름달 아래에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둥그렁 덩 둥그렁 덩』 전래동요, 김종도 그림 | 창비



운율과 리듬, 반복적인 즐거움

『둥그렁 덩 둥그렁 덩』 속 “둥그렁 덩”의 반복이 운율을 만들어 장면과 장면을 잇는 후렴이 되고, 낭독의 호흡을 조절합니다. 시 그림책은 언어의 리듬 속에서 운율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언어놀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축적 표현과 비유, 상징적인 언어와의 만남

시 그림책에서는 시 언어의 특징적 요소인 비유나 상징적인 언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낯선 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독자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땅거미 거미줄은 황새 ➡ 하얀 것은 토끼 ➡ 토끼는 날다 ➡ 나는 것은 까마귀



『시리동동 거미동동』 제주도 꼬리따기 노래 글, 권윤덕 그림 | 창비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끝말잇기처럼 제주도 꼬리따기 노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 그림책이다.



시 그림책은 리듬감 있는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시적 표현이 어우러져 유아들이 언어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언어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셋, 정서의 풍요로움

『살아 있다는 건』
다니카와 순타로 글,
오카모토 요시로 그림,
권남희 역 | 비룡소



『우리는 안녕』
박준 글,
김한나 그림 | 난다

일상의 정서를 다시 만나는 즐거움

『살아 있다는 건』은 유아의 일상에서 살아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와 그림을 풀어내며, 『우리는 안녕』은 일상적인 인사말인 ‘안녕’을 시적 언어로 변주하여 다양한 감정의 안녕을 강아지와와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풀어냅니다. 이 속에서 유아들은 일상적인 정서를 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 그림책은 원작 시가 지닌 감정의 결을 색깔, 구도, 페이지 넘김 등을
그림책의 형식적 요소로 가시화하여 시 속의 정서를 새롭게 느끼게도 해주며
한 층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TIP
『넉 점 반, 읽기 tip
그림책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옛 문화를 찾아보세요!

『넉 점 반』 윤석중 시,
이영경 그림 | 창비

정서의 확장성

『넉 점 반』에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 옛 시절을 살지 않은 유아들도 옛 정취와 온기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 그림책의 그림은 원작 시어와 어우러져 시의 정서를
시각화함으로써, 유아들이 텍스트만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의미와
감정을 깊이 경험하며 감정 표현의 확장을 돕습니다.

작가탐구

권 윤 덕

“읽어주는 그림책이 아닌 읽는 그림책을 그리고 싶다”

시 그림책 『시리둥둥 거미둥둥』의 그림작가 권윤덕 작가는 그림책을 ‘세상을 보는 창문’으로 삼아,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을 치밀한 조사와 관찰을 통해 그림책으로 풀어내는 작가다.

일상과 가족에서 식민지·독재·분단,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품은 작품들로 예술적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며 많은 독자의 공감과 예술적 재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작 살펴보기

『시리둥둥 거미둥둥』 제주도 꼬리마기 노래 글, 권윤덕 그림 | 창비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글·그림 | 창비

『만희네 집』 권윤덕 글·그림 | 길벗어린이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권윤덕 글, 김서영 그림 | 남해의 봄날

『행복한 봉봉이』 권윤덕 글·그림, 길벗어린이



권윤덕 작가 더 알아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시 그림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윤극영의 시 『반달』을 낭송해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어 보세요.

이어서 시 그림책 『반달』을 읽으며 같은 시를 글로만 만났을 때와 글과 그림을 함께 만났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반달

윤극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달고 돛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 반짝 비치이는건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반달』 윤극영 시, 하수정 그림 | 섬아י



시에서 시 그림책으로, 시적 이미지와 그림 이미지 간의 상호작용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Q.1

원작 시의 ‘행’과 시 그림책의 ‘페이지 넘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같나요?

“

Q.2

시의 언어와 시 그림책의 시각적 단서가 유아들의 읽기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

시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같은 시를 원작 시로 읽을 때와 시 그림책으로 읽을 때, 유아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아와 함께 시 그림책 펼쳐보기

시 그림책은 유아들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시 자체를 충분히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울리는 음악과 분위기를 마련한 뒤 교사가 시의 전문을 우리 말 맛이 살게 낭송해주고 유아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으로 체감하며 시를 감상해 보세요!

원작 시나 시 그림책에서 다루는 소재나 맥락이 있다면 다양한 공간과 분위기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유아들이 ‘그림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시를 함께 읽은 뒤 원작 시를 오롯이 유아들이 해석한 시의 의미로 직접 그림을 덧대어 보며 그림작가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문재 시인이 말했다.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시일 수 없다. 좋은 시란 오독 가능성이 큰 시다.”

『만질 수 있는 생각』 이수지 글 | 비룡소 중 ”

유아들의 오독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교실, 유아들의 시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도 작자가 해석한 시의 의미와 느낌을 존중하는 교실을 만들어 주세요.

시 그림책 추천작 한눈에 보기



시리둥둥 거미둥둥
제주도 꼬리따기 노래 글,
권윤덕 그림
| 창비

꼬리따듯 이어지는 제주도의 말을 따라 엄마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유아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시 그림책이다.



시를 읽는다
박완서 글, 이성표 그림
| 작가정신

아이들은 시를 왜 읽는다고 생각할까요? 시의 문장이 시와 같은 그림에 어우러져 좋은 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 그림책이다.



우리는 안녕
박준 글, 감한나 그림
| 난다

강아지 '단비'의 만남과 이별을 안녕이라는 말로 엮어낸 시 그림책이자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던 안녕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 그림책이다.



똥집
김용삼 글, 연두콩 그림
| 빨간콩

똥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작되는 유쾌한 은유와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이며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재치와 기발함을 엿볼 수 있는 시 그림책이다.



백살이 되면
황인찬 글, 서수연 그림
| 사계절

서정적이며 몽환적인 삽화와 함께 휴식을 담아낸 잔잔한 느낌을 전하는 시 그림책이자 눈도 마음도 생각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시 그림책이다.



달팽이 학교
이정록 글, 주리 그림
| 바우솔

느릿하지만 곳곳이 자신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달팽이의 세계를 리듬이 느껴지는 짧은 글과 달팽이의 이미지를 잘 살린 그림을 담은 시 그림책이다.



만돌이
윤동주 시, 김정민 그림
| 북극곰

순수하고 맑은 윤동주의 동시가
개구지고 정겨운 그림을 만나
새롭게 탄생한 시 그림책이다.
이 책에는 친구들과 마냥 놀고
싶은 유아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다.



살아 있다는 건
다니카와 순타로 글,
오카모토 요시로 그림,
권남희 역 | 비룡소

삶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를
유아의 일상에 담아낸 시 그림
책이다. 시의 상징과 삶의
의미를 그림과 함께 아름답게
녹여내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글, 유리 그림
| 이야기꽃

대추 한 알이라는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존재에
태풍과 천둥 그리고 벼락까지 담아낸 시에 그림이
더해져 둥근 대추 한 알의 이야기를 담은 시 그림책이다.



강아지와 염소 새끼
권정생 시, 김병하 그림
| 창비

개구쟁이 강아지와 새끼 염소가 아옹다옹하다가
어느새 친구가 되어 뛰노는 이야기를 세심하게
그려낸 시 그림책이다.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 이야기꽃

씨앗에서부터 바람에 흩날리기까지 민들레의
한살이를 시와 그림으로 담아낸 시 그림책이다.



선생님 과자
장명웅 글, 김유대 그림
| 창비

어린이가 쓴 시를 담은 시 그림책이다. 혼자 과자를
먹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애달픔이 아이가
공책 위에다 몰래 한 낙서처럼 그린 일러스트를 통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시 그림책이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이란 이야기의 전통적인 흐름을 깨고, 익숙한 틀이나 경계를 넘어서며, 독자가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그림책입니다.

포스트모던 그림책 깊이보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까요?

하나, 아이러니

- ▶ 아이러니란 말이나 행동, 글과 그림이 서로 달라 숨은 의미나 반전의 재미가 있는 서사적 장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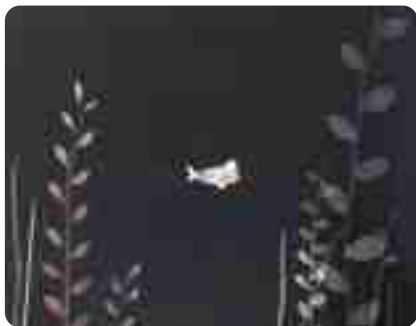
잠에서 깨더라도

아마 모자가 사라진 건 알지 못할 거야.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 · 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잠에서 깨더라도
아마 모자가 사라진 건 알지 못할 거야.



글과 그림이 다른 이야기

그림이 없이 작은 물고기의 독백과도 같은 글만을 따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사건을 볼 수 없습니다. 유아들과 “그림 vs 글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상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날 보긴 했어.
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난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보이는 것과 숨은 뜻이 다른 의미

‘꽃게’라는 인물을 통해 그림책을 보는 유아들을 사건의 비밀스러운 목격자로 참여시킵니다. 꽃게를 믿고 있는 작은 물고기의 말과는 다르게 꽃게의 손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유아가 시각적 단서와 다양한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를 돕습니다.

둘, 시각적 암시

- ▶ **시각적 암시**란 인물의 시선, 색, 구도와 같은 그림 요소를 통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다음 상황이나 감정을 유추하게 만드는 그림책 속 단서입니다.



커다란 물고기는 아마
오랫동안 잠에서
안 깰 거야.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 · 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등장인물의 시선을 통한 암시

큰 물고기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눈동자가 위를 향하기도 하고, 앞 쪽을 향하기도 합니다. 등장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보며,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자가 사라진 걸 알게 되더라도
아마 내가 가져갔다는 건 눈치채지 못할 거야.

『모자를 보았어』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그런데 모자가 한 개야.
그리고 우리는 둘이야.

무슨 생각하고 있니?
지는 해 생각.



무늬의 차이를 통한 암시

세모 모양의 무늬를 가진 거북이와 네모 모양의 무늬를 가진 거북이의 차이를 클로즈업한 장면을 통해 두 거북이가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라는 단서를 줍니다. 색상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단서들을 찾아보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은 그림의 색, 시선, 공간 배치의 단서를 찾아보며 이야기를 확장하고, 시각적 문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 열린 결말

- ▶ **열린 결말**이란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고 여백을 남겨, 독자가 스스로 다음 장면이나 의미를 상상하게 하는 결말입니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 · 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유아가 완성하는 결말

마지막 장면에서 모자를 쓰고 유유히 떠나는 큰 물고기를 보며 유아들이 결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풀로 가득 찬 뒷면지와 보이지 않는 작은 물고기의 모습을 보며 유아들과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의 문을 열어두는 결말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는 떨어뜨린 빨강 책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빨강 책은 또다시 안경 쓴 소년에게 발견 되어집니다. 소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음 이야기를 유아들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빨강 책』 바바라 리만 글 · 그림 | 북극곰



이야기의 열린 결말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생각하고 상상하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언어적 놀이**로 표현하는 **창의적 사고**에 도움을 줍니다.

존 클라센

“(모자라는 소재에 대해) 단순히 누군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

존 클라센은 1981년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아트 디렉팅을 하다가 2010년부터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다. 첫 그림책 『내 모자 어디갔을까?』는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그림책 TOP 10’에 선정되었고 뒤이어 나온 그림책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로 칼데콧 상을 수상했다.

대표작 살펴보기

『내 모자 어디갔을까?』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모자를 보았어』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하늘에서 돌이 쿵!』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너의 숲』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주니어 RHK(주니어랜덤)



존 클라센 더 알아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앤서니 브라운의 『동물원』을
읽으며 철창이 나오는 장면에서
드는 느낌을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동물원』 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 장미란 역 | 논장

고릴라가 나오는 장면에서 그림 프레임은 네 칸으로 나누어집니다.

Q.1

고릴라의 그림을 왜 나누었을까요?

Q.2

한 면이 모두 그림인 것과, 분할로 나누어진 그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엔 제목은 같지만 다른 그림책인 이수지의 『동물원』을 볼까요?
동물원에 놀러간 가족이 바라본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동물원』
이수지 글 · 그림 | 비룡소

Q. 3

현실 속 어른의 동물원과, 상상 속 유아의 동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색, 분위기, 동물들의 표정 등...)

“

또, 그림책 속 자주 등장하는 ‘철창’이 주는 느낌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시각적 암시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유아와 함께 포스트모던 그림책 펼쳐보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유아들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같은 그림책을 한두 번 읽었을 때가 아닌, 여러 번 반복해 읽었을 때 처음과 느낌이 어떻게 달랐는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유아들의 다양한 해석을 존중해 주세요!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유아가 발견한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존중해주고, 친구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빨간 나무』 손 탄 글 · 그림, 김경연 역 | 풀빛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 나눠보세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읽으며 그림 속 요소들(색, 모양, 시선, 배경 등) 중에 숨겨진 상징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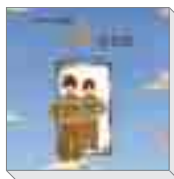
의도적으로 숨겨둔 상징과 암시를 찾아보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포스트모던 그림책 추천작 한눈에 보기



그림자놀이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온갖 물건들이 들어 있는 창고에서 한 소녀가 그림자를 만들며 노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이다.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그림자 친구들과 한바탕 신나는 놀이를 펼친다.



거울 속으로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김현자 역 | 베틀북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 보았을 상상의 세계를 통해 해방감을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다. 앤서니 브라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의 진수를 보여준다.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요?
스티안 홀레 글·그림,
이우진 역 | 웅진주니어

여섯 살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 삶과 죽음,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전통적인 문화, 질서, 관습을 허물고 '죽음'과 같은 어두운 주제도 마주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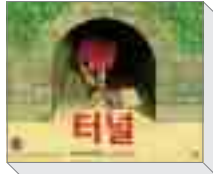
책 속의 책 속의 책
요르크 뤼러 글·그림,
김라함 역 | 비룡소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호기심 가득한 그림책이다. 거울을 들고 다른 거울을 쳐다보면 끝없이 되비치는 모습처럼 그 끝을 보기 위해 3D 안경을 쓰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책 속의 아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냄새 고약한 치즈맨과 명칭한 이야기들
존 셰스카 글, 레이 스미스 그림,
이상희 역 | 담푸스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진수로 평가되는 그림책이다. 10개의 전래동화를 패러디하여 고정 관념을 깨고 사고의 전환을 자극한다.



터널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정미란 역 | 논장

불가사의한 분위기와 극적인 구성으로 독자는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림책이다. 정반대 성향인 남매가 터널을 지나며 겪는 이야기 속에서 서스펜스적 요소를 느낄 수 있다.



숲 속으로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허은미 역 | 베틀북

잘 알려진 옛이야기를 그림 곳곳에 등장시켜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그림책이다. 할머니 집으로 심부름을 가며 느끼는 불안감, 긴장감이 한층 이야기의 재미를 돋운다.



구름공항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 시공주니어

평범한 일상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림책이다. 무료한 맨해튼 도시를 특별하게 만든 소년의 이야기는 신선하고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이끈다.



너와 내가
린네 레아 글,
스티안 홀레 그림,
김상열 역 | 북뱅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림책이다. 할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에 대한 소녀의 불안은 그림 곳곳에 상징과 삽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고, 독자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다.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레모니 스니켈 글,
존 클라센 그림, 김경연 역
| 문학동네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던 '어둠'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어둠과 맞서고 공포와 싸우며 도달한 그곳에는 뜻밖의 선물과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파어요
맥 바넷 글, 존 클라센 그림,
서남혁 역 | 시공주니어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 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 이야기이다. 오직 독자만이 알 수 있는 그림 속 시각적 암시를 찾는 재미가 있다.



꿈꾸는 율리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허은미 역 | 웅진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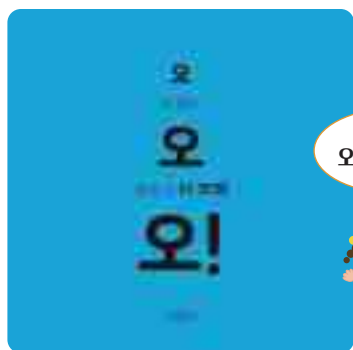
톡톡 튀는 재기 발랄한 그림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책이다. 영화배우, 가수, 화가가 되는 꿈을 꾸는 찰팬지 율리와 함께 제시되는 명화들로 다양한 시각적 참조물을 볼 수 있다.

놀이참여 그림책이란 독서 방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독자가 책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독서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림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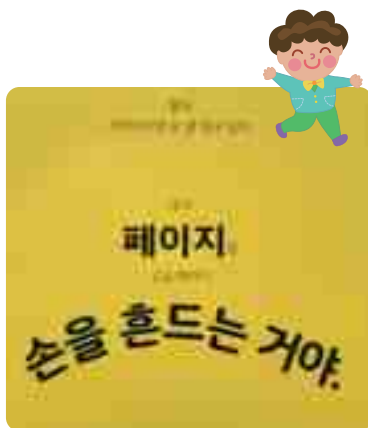
놀이참여 그림책 깊이보기

놀이참여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까요?

하나, 독자와의 소통



오! 오!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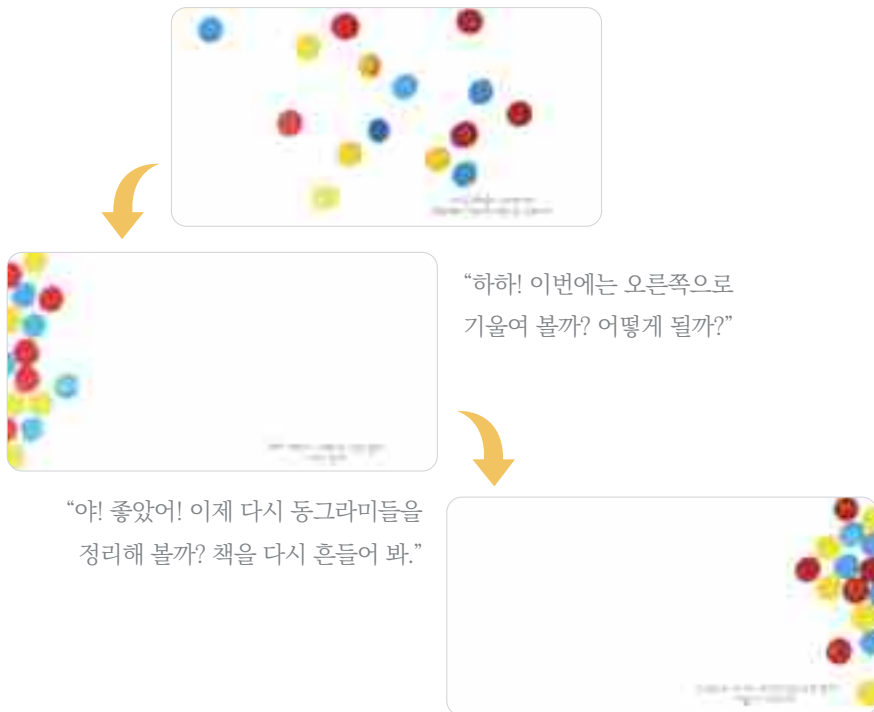


『나는 오, 너는 애!』 존 케인 글·그림, 이순영 역 | 북극곰

액션(action)으로 참여

책이 던지는 언어적·비언어적 요청에 유아가 반응하면서 문자 이전의 몸·행동·표정이 모두 문해적 소통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야! 동그라미들이 날아다니네!
책을 살짝 기울여 봐, 왼쪽으로. 왼쪽이야!”



『책 놀이 Un Livre press Here』 에르베 툴레 글 · 그림, 김효나 역 | 루크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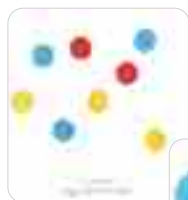
리액션과 추임새를 통한 소통

유아들은 그 순간에 등장한 **작가의 긍정의 추임새** 덕분에 ‘내가 기울여서 동그라미가 움직였다’라고 상상했던 것에 대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책과 소통하는 경험은 유아가 단순히 이야기를 ‘보는 것’을 넘어,
말하고 움직이며 책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신체·정서가
통합된 문해 경험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물, 능동적 주체



“아, 내려오네! 손뼉을 쳐 봐, 짹! 짹!
그렇지!”



“또! 쳐 보자, 짹! 짹! 짹!”



“또 쳐 볼까? 짹! 짹! 짹!”

계속!



『책 놀이 Un Livre Press Here』
에르베 툴레 글 · 그림, 김호나 역 | 루크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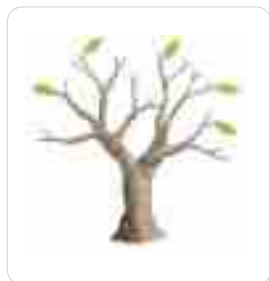
이야기를 움직이는 참여자

유아가 박수를 칠 때마다 동그라미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유아는 책을 수동적으로 보는 독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움직이는 참여자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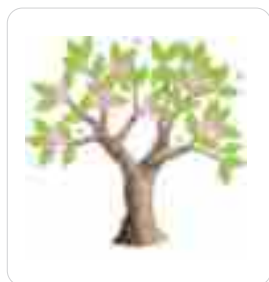


유아는 책 속 세계를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로 성장합니다.

셋, 감각적 탐색



이번엔 네 번 두드려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꽃봉오리를 하나씩 만져 봐.
어떻게 변할까?

『두드려 봐, 만져 봐 마법의 나무』
크리스티 매드슨 글·그림, 이정훈 역 | 북뱅크

3차원의 경험

책 속의 지시를 따라 손가락으로 톡 두드리거나 문지르면 잎이 나고,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마법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유아는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감각적 경험을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아의 감각 통합 능력과 주의집중을 촉진할 뿐 아니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입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여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합니다.

넷, 창조적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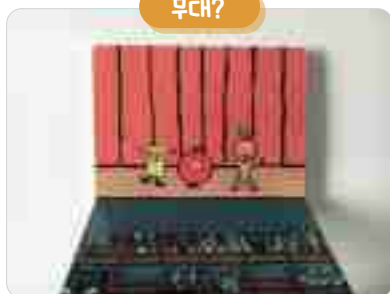
피아노?



노트북?



냉장고?



무대?

「이건 책이 아닙니다」 장 줄리앙 글 · 그림 | 키즈엠

책의 물성 활용

페이지를 펼치고 접는 순간마다 책이 피아노·노트북·냉장고·무대 등 전혀 다른 것으로 '변신'합니다. 고정된 이야기 대신 책의 형태와 여백을 활용해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고 해석하도록 열어둔 이 책은, 책을 읽는 행위를 창조적 놀이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다양하게 변형시켜 보며
유아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책의 물성을 탐색하며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르베 툴레

“저는 관람객과 대중, 독자를 하나로 만드는
예술을 사랑합니다”

프랑스 창의예술가 에르베 툴레는 조형미술과 장식미술을 공부하고, 1990년대 10여 년간 아트 디렉터로 활동했다. 1994년 자신의 아이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면서 창의예술을 시작했으며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책을 출간했고, 198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논픽션 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다. 2010년 내놓은 『책놀이 Un Livre Press Here』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38주간 머무르며 세계 30개국에서 200만 부 넘게 팔렸다.

대표작 살펴보기

『색색 깔깔 놀이』 에르베 툴레 글·그림 | 루크북스

『소리를 만들어봐』 에르베 툴레 글·그림 | 루크북스

『손 춤(La Danse Des Mains)』 에르베 툴레 글·그림 | 루크북스

『손가락 모험 놀이』 에르베 툴레 글·그림 | 루크북스

『그림자 놀이』 에르베 툴레 글·그림 | 루크북스



에르베 툴레 더 알아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놀이참여 그림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에르베 툴레의 『책 놀이 Un Livre Press Here』를
한 명은 교사역할, 다른 사람들은 유아의 역할이 되어서
책을 읽어보고, 교사와 유아의 입장에서 반응을 공유해보세요.



『책 놀이 Un Livre Press Here』에르베 툴레 글 · 그림, 김효나 역 | 루크북스



놀이참여 그림책에서 교사의 개입전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Q.1

유아의 입장에서 그림책에 몰입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

Q.2

교사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

유아와 함께 놀이참여 그림책 펼쳐보기

책 자체를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림책을 언어영역에만 꽂아두진 않았나요?
그림책을 교실의 곳곳에 미리 배치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조작하며
‘책을 만지는 경험’을 하게 해보세요.



에르베 툴레는 자신의 책을 읽고 다양한 워크숍의 형태로
유아들이 마음껏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책을 읽고 받은 감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해 보세요.



제 3장

정르벨로 만나는 그림책의 세계

출처: 에르베 툴레 展: 색색갈갈 뮤지엄

놀이참여 그림책 추천작 한눈에 보기



색색 깔깔 놀이
에르베 툴레 글 · 그림
| 루크북스

손가락 지문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참여형 그림책이다. 에르베 툴레는 색을 감정이 아닌 생각을 탐험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독자가 물감을 섞고 칠하며 색과 놀이를 즐기도록 이끄는 작품이다.



소리를 만들어봐
에르베 툴레 글 · 그림
| 루크북스

책과 목소리를 잇는 악보 같은 그림책이다. 파란 점과 빨간 점을 통해 독자가 직접 소리를 내며 읽도록 유도하며, 소리를 통해 완성되는 그림책이다.



손 춤(La Danse Des Mains)
에르베 툴레 글 · 그림
| 루크북스

독자들이 책을 손에 쥔 채 머무르지 않고, 내려놓고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에르베 툴레는 이 책을 통해 손과 몸, 감각으로 그림을 경험하도록 초대한다.



손가락 모험 놀이
에르베 툴레 글 · 그림
| 루크북스

노란 동그라미가 “우리 같이 놀아볼까?”하고 독자를 초대한다. 독자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노란 점과 놀고, 장애물을 함께 넘으며 유머가 어우러진 시각적 놀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절대로 누르면 안 돼
빌 코터 글 · 그림, 이정훈 역
| 북뱅크

‘누르지 말라’는 경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참여형 그림책이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펼쳐지는 변화 속에서 유머가 예측과 상상, 유머의 놀이를 즐기도록 이끈다.



이건 책이 아닙니다
장 줄리앙 글 · 그림 | 키즈엠

책을 열면 노트북이자, 박수치는 두 손이자, 공구상자로 변한다. 기존의 책의 형태를 벗어나 각 페이지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로, 독자들에게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도록 도전한다.



두드려 봐 만져 봐 마법의 나무
크리스티 매드슨 글 · 그림,
이정훈 역 | 북뱅크

손으로 두드리고, 문지르고, 흔들며 나무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참여형 그림책이다. 단순한 동작을 통해 유아가 자연의 변화와 마법 같은 상호작용을 체험하도록 이끈다.



마술 연필을 가진 꼬마곰
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
오미숙 역 | 현북스

꼬마곰이 그린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상상력 가득한 그림책이다. 그리기와 상상이 어우러져 유아가 창조의 즐거움과 '그림으로 놀기'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이끈다.



나는 오, 너는 애
존 케인 글 · 그림,
이순영 역 | 북극곰

이 책은 간단한 주문을 주고 받으며 유아와 부모가 함께 소리로 노는 참여형 그림책이다. “내가 오 하면 너는 애!”와 같은 놀이를 통해 언어 감각과 문해력, 창의적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



나는 뽕, 너는 엉
존 케인 글 · 그림,
이순영 역 | 북극곰

방귀쟁이 유령 ‘뽕’이 등장해 유아들의 반응(웃기, 따라 말하기, 행동으로 표현하기)을 이끌어 내며 놀이를 한층 확장한다.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소리, 리듬, 몸짓의 신호에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



그림자 놀이
에르베 뢰레 글 · 그림
| 루크북스

빛이 가는 길이 사물에 의해 막혀 만들어지는 책. 물체와 빛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그림자 책을 통해 빛, 그림자의 학습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유아 스스로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빛 놀이
에르베 뢰레 글 · 그림
| 루크북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마다 빛과 색이 서로 반응하며 전혀 새로운 감각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다. 손끝으로 빛을 따라 가고, 페이지가 만나는 접점에서 펼쳐지는 변화들을 관찰하며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성질과 시각적 움직임을 탐색하게 된다.

패러디 그림책이란 기존에 익숙하게 알려진 동화나 옛이야기, 우화 등의 이야기를 수정하거나 개작한 그림책입니다.

패러디 그림책 깊이보기

패러디 그림책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알아볼까요?

하나, 원작과 같은 플롯

▶ 원작과 같은 플롯으로 전개되는 유형은 인물, 사건, 시점에 변화를 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기돼지 세 자매』

프레데릭 스테르 글 · 그림, 최윤정 역 | 파랑새어린이



인물의 변화

등장인물에 변화를 주었지만 세 마리 돼지라는 설정, 주인공을 잡아먹는 늑대, 집을 짓는 플롯은 원작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말에서 셋째 돼지가 사나운 늑대로 변장해 못된 늑대를 잡는 내용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기존 『아기 돼지 삼형제』 원작의 내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늑대를 잡으러 간 빨간 모자』 미니 그레이 글 · 그림, 신수진 역 | 다그림책(키다리)

사건의 변화

원작을 연상시키는 빨간 모자와 늑대가 등장인물로 나오지만 원작의 이야기와 다른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에서는 빨간 모자가 모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 남은 마지막 늑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원작과는 달리 새롭게 구성된 내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늑대야, 이름은 알렉산더 올프.

그냥 알이라고 부르기도 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셰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황의방 역 | 보림



시점의 변화

‘늑대’의 시선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재서술한 그림책으로 늑대가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그림책을 보는 독자들은 그림들 안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늑대가 들려주는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됩니다.



원작과 다른 인물의 시선, 역할, 사건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여,
유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둘, 원작과 다른 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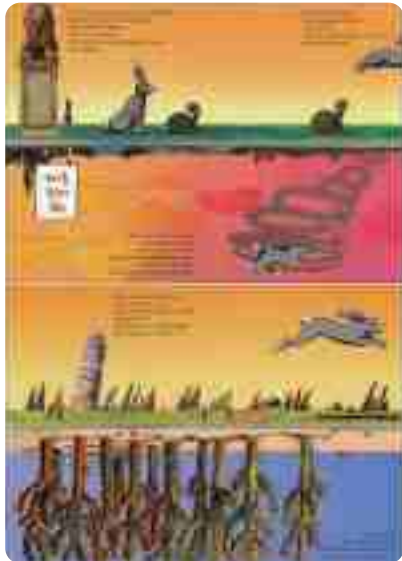
▶ 원작과 다른 플롯으로 전개되는 유형은 후속담 유형, 결합 유형, 복합 유형으로 나뉩니다.

후속담 유형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로 달리기 경주의 배경을 전 세계로 확장했지만 원작과 마찬가지로 토끼가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앞서면서 경주에서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림책 형태가 상하로 나뉘어서 상단부분을 읽고 마지막에 가면 경주에서 반환점을 돌듯이 뒤집어 돌리면 다시 경주의 첫 장면이 시작되는 구조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주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세계 일주』
설리 클레이저 글, 밀턴 클레이저 그림,
박정석 역 | 비룡소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
조프루아 드 페나르 글 · 그림, 이정주 역 | 베들북

결합 유형

그림책 속에 여러 옛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엄마염소와 아기염소, 빨간 모자, 아기 돼지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또한 기존의 포악한 늑대가 아닌 착한 늑대가 등장하여 원작과의 유사성보다 새로움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아기 돼지 세 마리』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이옥용 역 | 마루벌



복합 유형

늑대로 인해 이야기 밖으로 나와 버린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이야기 속을 여행하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용을 구하기 위해 이야기 속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아기 돼지 세 마리는 용의 도움을 받아 늑대를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원작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유형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머 있게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문학적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셋, 풍자와 해학을 통한 재구성

원작의 요소를 유머로 재구성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의 이야기는 원작의 등장인물과는 반대되는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원작의 착한 돼지들과 달리, 포악한 돼지가 과장된 힘과 도구로 집을 부수는 모습을 통해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뒤집히며 유머와 반전을 만들어 냅니다.



돼지는 문을 두드리며 꿀꿀거렸습니다.
“아기 늑대들아, 아기 늑대들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아기 늑대들이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차 마시는 건 꿈도 꾸지 마!”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헬렌 옥스버리 글, 유진 트리비자스 그림, 김경미 역 | 시공주니어



“별거송이 임금님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
그럼 그 임금님의 손녀딸
이야기도 알고 있지?”

『장화 쓴 공주님』 심미아 글 · 그림 | 느림보

익살과 유머를 통한 발상의 전환

『장화 쓴 공주님』은 별거송이 임금님의 후속편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 모양을 바꾸는 엉뚱한 공주님의 등장으로 독자들에게 익살과 유머를 선사합니다. 공주의 과장된 행동과 우스운 장면들은 독자가 기존 원작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풍자와 해학은 무거운 교훈이 아닌 **유쾌한 즐거움 속에서 다른 시각을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기존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존 세스카

“제 책을 읽을 때 바라는 한 가지는 독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존 세스카는 1954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태어났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후,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세스카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소년을 위한 독서 장려 협회 ‘가이스 리드’를
창설했으며 초대 청소년 문학 진흥을 위한 홍보 대사로 활동했다.

대표작 살펴보기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황의방 역 | 보림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
존 세스카 글, 스티브 존슨 그림, 엄혜숙 역 | 보림
『냄새 고약한 치즈맨과 명칭한 이야기들』
존 세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이상희 역 | 담푸스



존 세스카 더 알아보기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패러디 그림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원작과 패러디 그림책 중 어떤 책을 먼저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원작을 먼저 읽어야 할까요? 선생님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세요!

원작 먼저 제공



『아기 돼지 삼형제』 폴 간돈 글·그림,
이상희 역 | 시공주니어



『아기 돼지 세 자매』 프레데릭 스테르 글·그림,
최윤정 역 | 파랑새어린이

패러디 먼저 제공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황의방 역 | 보림



『아기 돼지 삼형제』 폴 간돈 글·그림,
이상희 역 | 시공주니어



우리가 만나는 패러디 그림책 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원작을 변형하고,
인물과 사건의 흐름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을까요?
패러디 그림책을 읽을 때 유아들과 함께 해 볼 수 있는 질문, 원작과 비교하는 방법,
결말을 바꾸어 보는 활동 등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Q.1

원작을 변형한 패러디 그림책을 읽어주었을 때, 유아들의 반응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Q.2

원작과 패러디를 비교하며 읽어줄 때, 줄거리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과
인물의 감정 또는 관점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우리 반 유아들에게 더 효과적일까요?

“

유아와 함께 패러디 그림책 펼쳐보기

패러디 그림책은 유아들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패러디 그림책을 원작과 함께 배치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패러디 그림책을 원작과 함께 교실에 배치하여 유아들이
여러 작품들을 비교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유아들이 원작과 패러디 그림책의 제목과 주인공, 비슷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 해주세요.



『빨간 모자』 그림 형제 글,
베너뎃 와츠 그림, 우순교 역 | 시공주니어



『늑대를 잡으러 간 빨간 모자』
미니 그레이 글, 신수진 역 | 다그림책(키다리)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헬렌 옥스버리 글, 유진 트리비자스 그림, 김경미 역 | 시공주니어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지수 글, 박신구 그림 | 애플비북스

같은 장면 속 등장인물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작과 패러디 그림책을 함께 본 뒤, 같은 장면을
다른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보고,
각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패러디 그림책 추천작 한눈에 보기



아기돼지 세 자매
프레데릭스테르 글 · 그림,
최윤정 역 | 파랑새

엄마 돼지는 세 자매 돼지에게 금화를 주며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 결혼하라고 한다. 길을 떠나다가 첫째와 둘째는 늑대에게 잡아 먹히지만 막내돼지는 지혜롭게 늑대를 물리치고 훌륭한 신랑감을 찾는 내용이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황의방 역 | 보림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늑대의 입장에서 풀어간다. 관점에 따라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헬렌 옥스버리 글,
유진 트리비자스 그림,
김경미 역 | 시공주니어

『아기돼지 삼형제』의 주인공을 늑대와 돼지로 바꿔 원작과는 달리 늑대가 아기 늑대 세 마리 이고, 돼지가 못된 돼지로 등장한다. 고정관념(선입견)에 대한 비판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새로운 결말을 담고 있다.



늑대를 잡으러 간 빨간 모자
미니 그레이 글 · 그림,
신수진 역 | 다그림책(키다리)

『빨간 모자』를 새롭게 해석한 그림책으로 사냥 모자를 쓰고 숲으로 간 빨간 모자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늑대와 만나면서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내용이다.



슈퍼 토끼
유설화 글 · 그림 | 책읽는곰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경주에 진 토끼의 뒷이야기를 통해 남들의 시선을 신경쓰기 보다는 실재를 딛고 일어서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아기 돼지 세 마리
데이비드 위즈너 글 · 그림,
이옥용 역 | 마루벌

늑대로 인해 이야기 밖으로 나와 버린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이야기 속을 여행하면서 위기에 처한 용을 구하고 다시 『아기 돼지 세 마리』 이야기 속으로 돌아와 용의 도움으로 늑대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내 멋대로 공주
배빗 콜 글 · 그림,
노은정 역 | 비룡소

전통적인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를 뒤집어 새롭게 탄생한 내 멋대로 공주와 어설픈 왕자의 모습을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그린 그림책이다.



책과 못된 나무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리베카 와일드스미스 글,
김선애 그림, 김선애 역 |
시공주니어

『책과 공나무』의 패러디 그림책으로 책이 욕심 많은 마녀에게 속아 평범한 공나무가 아닌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나무를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이다.



시골쥐와 감자튀김
고서원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시골쥐와 서울쥐』를 배경으로 새롭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생쥐와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자연에서 얻는 소박한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책이다.



장화 쓴 공주님
심미아 글 · 그림
| 느림보

『벌거벗은 임금님』의 후속작인 그림책으로 머리 모양에 관심을 갖는 손녀딸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고양이와 장화
아야노 이마이 글, 이광일 역
| 느림보

순님이 없어 가게를 닫을 위기에 처한 구두 가게를 똑똑한 고양이 의 재치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내용으로 『장화 신은 고양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러디 그림책이다.



토선생 거선생
박정섭 글, 이육남 그림
| 사계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그림책이다. 옛이야기의 유쾌함과 현대적 유머가 만나 독자에게 승부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려준다.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

연구책임자

서윤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집필진

권의재 (세종 산울유치원 교사)
김다혜 (세종 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은정 (호원대학교 교수)
김채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박은정 (경기 평택고덕유치원 교사)
박은화 (충북 더샵해봄어린이집 교사)
오아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윤미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이예슬 (대전 대전삼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전치우 (충남 조양유치원 교사)
정지영 (서울 상도유치원 교사)
조은별 (대전 대전상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상 가나다순>

연구협력관

송은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
송상희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펴낸 날 2025년 12월 31일

펴낸 곳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이 책을 무단전제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56-7430362-100003-01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